

지역 소식통

김제시, LPG 가스 급속배관 교체시행... 29일까지 신청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LPG 가스 사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 가스 급속배관 교체 사업을 시행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 용기의 압력조정기부터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에서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배관을 급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에 김제시는 노후된 LPG 고무호스 배관을 급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누출 위험을 방지하는 LPG 급속배관 교체사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제시는 LPG 가스 급속배관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에 설치비용(최대 22만 5천원)을 지원하며 일부 비용(자부담 5만원 가량)을 부담해 교체할 수 있다. 또, 영업용이 아닌 주택 LPG 가스 사용가구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LPG 가스 급속배관 교체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립도서관과 함께 하는 실버 책놀이 인기

김제시립도서관이 어르신들을 찾아가 함께하는 ‘행복한 어르신 책과 만남(실버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아카데미 실버 인지 책놀이 지도사를 양성해 활동가들이 마을의 경로당, 치매안심센터는 물론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등을 방문,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어르신 책과 만남(실버 책놀이)’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시작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한소망 주간 보호센터,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성리마을, 성서마을 경로당(신풍동), 동촌경로당(공덕면), 신흥경로당(금구면) 등 총 11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기관별로 10회에 걸쳐 어르신들과 책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림책 읽기와 공예, 놀이 등을 접목한 여러 유형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 선정

김제시, ‘전북에서 만나는 특별한 로컬배움터사업’ 교육부 특성화 사업부문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한 ‘전북에서 만나는 특별한 로컬배움터’ 사업이 2024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 특성화 사업부문 컨소시엄형에 공모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진흥원,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등 3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관간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제시는 ‘로컬 학습시대’를 맞아 모든 주민이 어디서나 공정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모델 발굴을 위해 처음 시도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가 추진한 특성화사업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광역-진흥원-도시 간 상생형 학습 벨트의 형성과 지역의 독자적이고 특화된 사업 구상으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확산된 사례로 시군의 사업제안을 통해 추진됐으며 정책발굴, 협력체계 구축, 도시 간 학습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입체적 학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로컬 기반의 맞춤형 학습모델 설계로 체험형 학습버스와 로컬 공방을 활용한 ‘로컬형 배움터’를 조성해 모든 연령과 계층의 경계와 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했다.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 학습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역 강사를 활용한 ‘전북형 로컬-MOOC 학습콘텐츠’ 제작, 전문강사연수 등 김제/부안/고

창의 학습환경에 적합한 테마형 사업 운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컨소시엄 형태로 처음 시도되는 이번 사업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사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협의회의 운영, 광역과 진흥원, 참여 도시 간 협력형 업무 연계 체계 구축, 디지털 학습관리시스템 도입은 실시간 학습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의 독자적이고 특화된 학습사업을 발굴해 주민 누구나 공정한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진흥원-도시간 협력형 파트너십을 형성, 사업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 국정과제에 맞춰 지역의 학습자산을 지키고 로컬형 학습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지역관광추진조직 공모 선정

완주군, 문체부 성과평가 우수... 올해 3천만 방문객 목표

완주군이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

14일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주민과 관광업체, 행정 등이 협업해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관광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체이다. 선정된 이후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국비 6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완주DMO는 완주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지역주민 중심 관광서비스 구축을 시작으로 1년 동안 매진한 결과 문체부 성과평가에서 우수 DMO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는 20일에는 문체부와 관광공사 주관 ‘2023년 성과워크숍’ 자리에서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받을 예정이

다. 올해 완주문화재단은 ‘로컬이 답이다’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완주 로컬 브랜드 ‘여행 큐레이터’ 양성을 위한 성장 플랫폼 구축해 관광 일자리 및 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완주형 위케이션 ‘내:일은 완주’, ‘로컬의 재구성’을 주제로 정책·교육여행 개발 및 유치, 완주 관광 개발 및 굿즈샵 구축, 여행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계획이다. 완주군 내 우석대학교, 현대자동차, 귀농귀촌지원센터 등과도 연계해 관광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는 2,000만 방문객 돌파라는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3,000만 방문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관광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관광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외국인 근로자, 완주군 단기 농촌 일손 돕는다

초단기 농업노동력 제공

완주군에 몽골 계절근로자 21명이 입국했다. 이 근로자들은 공공숙소에서 머물며 하루 단위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일손을 돕는다.

14일 완주군은 군청사에서 유희태 완주군수, 순병철 고산농협 조합장, 서남용 군의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국 환영 행사와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이들은 덕압에너지 자립마을을 공동숙소로 이용하며, 오는 8월까지 농번

기 일손을 돕는다.

환영회에서는 외국인들의 근로 여건, 불법체류 및 이탈 방지 대책, 인권 보호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향후 일정을 안내했다. 이번에 입국한 몽골 계절근로자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일환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고산농협이 직접 외국인을 고용, 공동숙소를 운영하며 초단기(하루 단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농업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완주군은 지난해 성공적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올해는 시범

적으로 고산농협이 운영 주체가 돼 관리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농협에 이용료를 직접 지급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고산농협에 전화(063-244-9006) 신청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단기간 일손이 필요하고 숙소 제공이 어려운 소농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 확대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고산향교가 14일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지역유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김제시,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4월 26일까지 신청·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민으로 오는 4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15명이며, 참여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소 근무 일수와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김제 거주 결혼이민자의 외국 및 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희망자는 수시로 읍면동에 신청가능하며,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와 행정절

차를 거쳐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김제시는 결혼이민자 분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올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302명(공공형 40명, 농가고용 262명)을 배정받아 농민 인력부족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 고산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완주군 고산향교(전교 박석재)가 14일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지역유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를 일컫는다.

석전이란 채를 놓고 폐를 올린다는 예식에서 유래된 유림전통문화행사로 이날 제사는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 순서로 진행됐다. 고산향교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인과 우리나라의 유학자 설총, 최치원, 정몽주, 이항 등 18분의 위패

를 모셔놓고 석전대제를 행하고 있다.

석전대제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춘기석전대제의 봉행이 전통 제례문화의 계승·발전과 더불어 군민 화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완주군도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산향교는 태조 7년(1397) 창건됐으나 정종 2년(1399)에 소실돼 재건했다. 이후 또다시 임진왜란 때 파괴, 1601년 대성전 및 1604년 명륜당을 중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성전은 1985년 8월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